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차
	일자	2021.01.04. 18:3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2/13

참고자료: 중운위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피해자 추가질의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 (논의안건부터 참여)
약학대학	-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특이사항 없음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 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푸양' 표절 논란 관련 최종보고 진행
-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 참여: 20년도 결산내역 및 21년도 예산안 심의, 1월 26일 3차 회의 예정.
- 등록금환불협의체 요구 공문 및 등록금 환불 인식조사 결과보고 발송
- 단위요구안 작성 1.11까지

인문.정: 2차 등심위 일정이 언제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또한 20년도 결산내역과 21년도 예산안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지. 등록금환불협의체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받은 바 없는지?

총: 금요일 오후 3시 35분경 발송하였음. 현재 방학 중 업무 시간이 오후 4시까지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이나 오후 중에 총장님이 확인하실 것 같다는 답변 받았다. 첫 번째 질문 못 들었는데 다시 질문해줄 수 있는지?

인문.정: 등심위 2차 회의 일정과, 20년도 결산내역과 21년도 예산안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직 게시되지 않아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총: 등심위는 1월 8일 금요일 어제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예산안이나 결산내역 자료는 저도 언제 게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일을 문의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인문.정: 감사하다.

3. 논의 안건

1. 총학생회 2차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인 中 3인에 대한 논의

- 피해자 추가질의 답변문 *참고자료 - 논의 진행
- 본 안건 내 회의내용 공개범위 논의 : 사안 익명성 보장

사안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 문서의 내용이나 사건 관련자의 직접적 발언을 지칭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발언을 생략하였음 (*생략* 표기)

총: 피해자분께 추가 질의한 답변문은 중운위 공지방에 올라온 자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 피해자분께서 중운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중운위 차원의 논의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우선 성평위의 자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중운위 대표자들끼리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성평위 자문은 유보하였다. 중운위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지에 대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총: 피해자 질의서 화면공유 하겠다.

총: 의견이 있으신 단과대 대표자 분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저희가 이것에 대해 논의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 피해자께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찬성해주신 것이 확인되었으니,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다른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총: 경경대 회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정보 파악 진행 여부에 대해 대표자분께 의견 구했다. 대표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란다.

예.정: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계속 평행선상을 달릴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나눈 다음에 좁혀가지고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추가조사가 더 이루어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과.정: 저는 저번에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총학생회장단에서 공유해주신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중운위 내에서 어느정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점은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더 이상의 추가조사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다. 방금 예술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 같고, 대표자단이 바뀔 때마다 진상규명 TFT를 만들어서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할지 잘 모르겠다. 현재 답변 받은 답변 보고와 또 지난번에 공유되었던 비공개 문서를 가지고 중운위 차원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문.정: 예술대학 회장님과 사회과학대학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동의한다. 기존에 나온 진상규명 TFT, 지난번에 총학생회에서 올려주신 비공개 자료, 성평위에서 올린 자보와 피해학우분의 기자회견 등을 봤을 때, 추가적인 2차 가해에 대한 뭐 증거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증거를 찾는 과정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중운위 차원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총: 일단 단위별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난 대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TFT를 설립해서 관련 조사를 완료하였고, 저희 임기에 들어와서는 관련된 사항 중에 중운위에서 파악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질의서와 재질의서를 통해 직접 관련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차후에 추가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얻게 될 정보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혹시 경경대 회장께서 방금 발언하신 바가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후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경경.정: 우선적으로 질문 드린 것은 지금 논의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추가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진행이 되면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 상황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단과대 회장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추가로 드리고 싶다. 우선적으로 추가질의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논의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하고자 얘기 드린 바이다.

간호.비대위: 저번 회의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 TF를 꾸린다든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분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쭙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회의를 토대로 봤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는 데 따른 논의를 한다고 해도 저번 회의와 똑같아질 것 같고 증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피해자 분께서 대답하신 것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신 거고, 갖고 있는 자료들은 62대 중운위 안에서 TFT를 꾸려서 거기서 만든 자료이지 63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63대가 입장문을 쓴다든지 그런 가해지목인에 대한 무언가 액션을 취한다면은 63대에서도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가해자 3인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62대 총학생회장인데, 62대 총학생회장의 그런 과정조차도 문제로 제기 삼으려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63대에서 밟고 62대 총학생회장이 왜 잘못했는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63대 차원의 증거수집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총: 63대 중운위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면 증거 수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부총: 방금 두 단위에서 이야기 하신 바 중에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항은, 이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의견에 대해 다른 단위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생략*** 저희는 우선 63대 입장에서 추가로 진행을 할 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간호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63대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미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62대가 조사한 것에 비해서 어떤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또 도돌이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총: 의견을 정리해 줄 수 있는지?

통공.정: 우선 저희는 62대에서 조사한 결과들과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목가해자 3인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제시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중운위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된 액션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 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어떠한 액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한 과정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저희가 중운위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진행을 하겠다.

부총: 일단 방금 공대에서 말씀하신 의견은 이미 이 사안을 처음 가져왔을 때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해당 논의에서 성희롱과 2차 가해가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잘못과 차후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중운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발전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합의를 이루고 지금 이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진행할거냐 말 것이냐 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 논의를 진행하길 바라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을 정리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잘못, 전대 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미진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봤을 때 여튼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확정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파면된 인원이 사건의 전달자였던 만큼 2차 가해 발언 등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있었고 그 생산자에 대한 조치나 처벌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단 사실관계로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것이 만일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라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로 직접적인 관련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추합하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목하거나 지목되는 사람의 인정, 불인정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이미 나온 것은 다 나온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전하고, 아까 질문드린 데 대해서 답변해주시오.

총: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공.정: 말씀드린 내용은 2차 가해자 가해자 3인을 저희가 가해자로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정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시 토론하고 싶다는 말씀이다.

총: 단위별로 의견이 없을지?

경경.정: ***생략*** 때문에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과.정: 우선 사과대는 현 상황에서 가해 사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희도 당시 62대 진상규명TF의 논의보고서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62대의 해결과정에 대한 불신임이나 총학생회장의 해결과정에서의 귀책사유 등으로 지금의 논의가 있는 것인데, 62대에서 가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서 이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63대에서 TF를 꾸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TF에서는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저희가 가해사실이 있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단위별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63대가 된 시점에서 진상규명TF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62대에서 꾸린 TF에서 발견한 사실관계 이상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사과대에서는 해당 TF의 보고서를 보고 2차 가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63대에서 새로운 진상규명TF를 꾸리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사과대 회장께 질문 있다. 2차 가해 사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했으며, 그것이 이 가해지목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정: 우선 사과대에서는 피해학우분께서 말씀하신 해당 진상규명 TF에서 언급하신, 사과대는 당시에 진상규명 TF에 소속되어 있었고 관련 카톡자료 등을 열람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진상규명 TF의 논의에 대해 2차가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조금 더 피해자 중심으로 본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바는 다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2차 가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간호.비대위: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도 맞는 절차를 밟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3차 회의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단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해당 논의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또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입장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단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운위 이름으로 입장문을 낸다면 증거 수집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63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TFT자료도 물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만 가해지목인 3인을 처벌하지 않은 그 당시 총학생회장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쓴다면 총학생회장의 증거수집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직접 증거수집을 통해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경경.정: 간호대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가해지목인에 대해 가해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말하자면 피해자분께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말로만 이루어진 이런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증거불충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는 가해지목인이기 때문에 가해지목인과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가해지목인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일들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지금 저희가 보는 자료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간호.비대위: 중운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운위가 같은 학생사회 안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자분께 여쭙봤을 때 중운위 차원에서도 성평위와 검하여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해지목인 3인의 가해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정말 증거가 충분해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사실이 된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입장문을 내는 등 어떤 의사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불리 했을 경우 그분들이 만일 실제 가해자가 아닐 경우를 고려를 해봤을 때 가져올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가해지목인을 옹호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확실한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입장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 부분에 대해서 비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증거 수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여 의견 냈다.

총: 우선 3차 회의도 그렇고 금차 회의에서도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게, 우선 62대 내부 2차 가해 사건 처리에 대한 미진,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고 또한 이는 진상규명TF 입장문이라던지 추가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운위 입장을 표명을 하고, 다만 가해지목인에 대한 중운위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해지목인에 대한 입장

을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의과.정: 우선 저희는 아직 저희가 가진 자료만을 보고는 가해지목인 3인을 갖다가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경경대 회장님이나 간호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싶으면 더 증거를 찾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증거를 더 찾을 수 없다면 입장표명을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총: 방금 말씀해주신 입장표명의 범위가 가해지목인에 한정돼있는 말씀인지?

의과.정: 그렇다.

통공.정: 의대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도 동의한다. 중운위 차원에서는 62대 학생회의 미숙함부터 짚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하겠다.

총: 다른 단위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일단 중운위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 인 것 같다. 첫 번째는 해당 사건이 학생자치단체에서 대표자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는 사실과, 62대 학생회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과, 2차 가해 발생자에 대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차치하고서라도 2차 가해 발생자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 이 세 가지를 지적함은 지금 시점에서 확정을 할 수 있으나, 2차 가해 발생자를 현재 지목되고 있는 가해지목인 3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끝에 사과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주시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단위에서도 관련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의과.정: 더 이상 진상규명 TF를 꾸려서 자료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은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총: 해당 입장을 밝히신 대표자분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생각을 하느라 답변이 좀 늦었다. 2차 가해 가해지목인에 대한 3인의 증거를 찾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저희는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 왔지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의대 회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존에 나와있는 증거, 그 다음에 이전 성평위에서 밝힌 대자보들, 전 총학생회 디자인마케팅국장의 자보, 피해학우분의 기자회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해지목인 3인에 대해 규탄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 지목인 3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저희는 계속해서 밝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평위 자보를 보면, 2차 가해 지목인 3인은 계속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나 내부에 있었던 성평위원장님 디자인마케팅국장님 그리고 피해학우분께서는 계속해서 가해지목인 3인이 2차 가해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난 번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이 올려주신 것에 충분히 나와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이루어진 2차 가해와 카톡방 내에서 이루어진 2차 가해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다. 모든 사람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 발언의 장소가 자보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술자리나 회의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지난 총학생회가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누가 녹음기를 들고 다니겠는가? 그러한 2차 가해에 대한 증거를, 말로 이루어진 2차 가해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인문대학은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예술.정: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자면 증거를 찾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이유가, 인문대학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저번에 62대 총학생회에서 마지막에 발표한 사과문을 봤을 때에도 2차 가해에 대한 사실도 인정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을 외부로 설파한 2차 가해 지목인 중에 한 사람인 국원은 파면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2차 가해가 발생한 총학 내부 자체에서는 아무런, 징계까지도 처리가 된 상황에서 원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해지목인 3인을 특정하는 증거를 찾는 것보다, 입장문을 인문대나 사과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총학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계속해서 비슷한 의견 냈던 것처럼 새로운 TF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상규명TF의 효용성 부분에 약간 오인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진상규명TF가 새로 설립된다고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TF인데 TF가 설립될 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카톡 캡처본이던 어떤 증거물이던 계속 제출해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성폭력

TF가 할 역할이 맞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TF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쓸모가 없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성폭력TF인데 과연 피해자가 계속 소명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라 학생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떤 물증이나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증인을 잡고 저희가 색출해내는 것이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증거물 쪽으로 집중해서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사실상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진상규명 TF가 다시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간호.비대위: 자료를 읽어 보아도,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2차 가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전대 총학생회가 2차 가해에 조사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TFT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만, 2차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 누구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사회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증을,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학생사회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도 않은 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긴데, 그들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로 이제 가해자가 지목이 된다면, 그 지목인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히는 게 되지 않나. 똑같은 이야기이다.

경경.정: ***생략*** 이 가해지목인 3인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인 증거나 정확한 정황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로 3명이 지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장단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들도 있고 국장들도 있겠지만, 학생회 내에 다른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 3명이라고 특정짓기에는 아직 그러한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확정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분들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궁금하다.

간호.비대위: 증거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 싶다. 말씀드리는 증거가 피해자분이 당시 녹음을 했었던지 그런 파일이 아니라, 이제 가해지목인으로 지목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전 TF나 저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해지목인 3인에 대해서 입장을 내신 분들도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는 것도 증거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경경.정: 아까 만약 지금 이 내용만을 가지고 그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특정짓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대자보를 부착하신 학생회 임원 분과 성평위원장님이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셨는지에 대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조사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사과.정: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미 당선직후 첫 번째 임시회의 외에는 계속 해당 사항이 안건이 논의안건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단위별로 어느 정도 관련해서 이야기 공유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궁금한 것은 총학생회장단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 없이 논의로만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라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의결을 진행하길 바라시는 건지. 이미 단위별 생각이 어느 정도 공유되었다고 파악이 돼서, 진상규명 TF를 다시 발족한다든지 관련해서 의결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든다.

총: 개인적으로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온전히 공유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시에 해당 사안 대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62대 총학생회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미흡한 대처가 있다, 우리 중운위는 보완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입장문 내에 가해지목인을 언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았을 때 중운위에서는 가해지목인에 대해 언급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 TF나 추가절차를 통해서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입장문을 표명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부총: 다시 정리를 하면 그 가해지목인 지목 경위나 파악을 위한 조사위 활동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장문을 쓰는 것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과정이 의결을 통해 부결된다고 하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내게 될 것 같은데...

총: 계속 말씀해주시라

부총: 일단 피해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운위가 계속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운위 내에서 어떤 합의된 방향으로써, 여튼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내는 게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입장이나 결론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입장을 낼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입장을 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정을 정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입장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위를 꾸리게 된다면 피해자분이 추가적으로 느끼실 피로도라든지, 진상규명TF에서 파악한 내용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질의의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만약 그것을 하게 된다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의결이던 논의던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 그러면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위를 설립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총: 의결명을 불러 드릴테니, 의결명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여서 피드백 주시기 바란다. '62대 총학생회 2차 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위를 설립한다' 라는 의결명이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명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결명 살펴보고 수정사항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궁금한 게 있다. 조사위 설립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 찬성이 많으면, 의결이 돼서 조사위가 만들어 질 건데, 지난번 진상규명TFT는 피해학우분께서 전 인문대학생회장님께 요청을 해서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조사위에 대한 피해학우분의 어떠한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위를 만들고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더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과연 피해학우분께서 조사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조사위를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혹시 다른 단과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다. 조사위를 만들고 피해학우분께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다른 학생회장님들의 생각이 궁금해 질문을 드린다.

총: 조사위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우선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과대 대표자들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대위: *생략* 이를 보았을 때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위를 꾸리는 것이므로 조사위를 꾸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연.비대위: 간호대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간호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부: 간호대 의견에 동의한다.

통공.정: 동의한다.

총: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생략* 이 부분이, 조사위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부총: 아까 질문하신 것이 *생략* 그 방안으로서 조사위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지 혹은 다른 의견이셨는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맞다 제가 질의 드린 바는. *생략* 제가 보기에는 조사위와 관련돼서 피해학우분께서 의견을 주시기보다는 이 사건을 뭔가 아무런 의견 없이 넘어가지 말아달라는 의견으로 저는 파악을 해서, 피해학우분의 구체적인 의견을 알 수 없어서 제가 여쭙본 것이다.

간호.비대위: 지금 회의에서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되어서 조사위를 꾸리는 데 대한 의결이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하신 것들처럼 여태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미루어 와가지고, 또 이것을 피해학우분께 조사위의 방향에 대해서 여쭙보고 그 다음 또 회의를 진행하는 데, 조사위가 어떻게 될 거다 에 대해서 또 여쭙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하여 회의가 임시회의를 계속 연다고 해도 미뤄질 것. 우선 적어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이룬 다음에 조사위를 꾸리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는지, 수렴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꾸릴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피해학우분께 우리가 조사위를 꾸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구체적으로 여쭙보는 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피해학우분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또 회의는 무산되고 아무것도 못하니 우선적으로 논의를 세밀하게 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한다.

부총: 간호 비대위원장이 주신 말씀대로 이번 회의에서도 어떤 사안의 결정이 일부분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다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한 번 의결이 되면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피해자께서 조사위의 설립이나 진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간호.비대위: 그러면 의결명 정정 신청하겠다.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위 설립에 대해서 피해자 분께 여쭙본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여쭙볼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인문.정: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안 내용이면 괜찮을 것 같고, 조사위 설립에 대해 피해학우분께 여쭙본다 로 의결명을 바꾸고, 그 안에 조사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피해학우분께 여쭙본다면 더 진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총: 저도 하나 의견으로서 드리자면, 단순히 의견을 묻는 내용을 의결안건명으로 넣기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의결안건의 앞에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의미가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피해자의 동의하에 라는 문구를 넣으면 괜찮을지

간호.비대위: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 동의한다.

의과.정: 의과대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 동의한다.

동연.정: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총: 대부분의 대표자께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제목	피해자의 동의하에, 62대 총학생회 2차 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위를 설립 한다.					
찬성	9	반대	0	기권	3	가결

총: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어떠한 조사위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사위 설립에 대해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대위: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중운위에 요청해주신 부분인 거고, 중운위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전 62대같은 경우는 인문대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문대회장단에서 맡아주셨는데 이번 건은 총학생회장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조사위를 따로 설립하는 것인 만큼 조사위 구성원에 대해서도 들어올 단위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간호.비대위: 중운위에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운위 안에서 조사위를 설립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나 중운위의 업무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각 단과대학 대표자들 동아리 연합회 총 단위로 따로 조사위를 설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구성원 내에 성평등위원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향에 있어서는 경경대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자보 부착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던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추가적으로 가해지목인에 있어서도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총: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우선 총학생회장단 주체로 조사위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중운위 업무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참석 단위를 조사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 성평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조사위가 설립이 돼서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가해지목인 겸 가해지목인 지목 경위를 재파악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 간호대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사위 구성원을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따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임기에서 진상규명TFT가 일부 중운위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은 중운위 내에서 해당 TFT의 설립에 대한 의결 안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중운위 외에서 따로 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여부를 따로 물어본 것입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중운위 내에서 해당 의결안건이 발의가 되었고, 가결이 되었고, 여튼 중운위 업무와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일정이나 따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만 안건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경우는 중운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중운위와 아까 경경대에서 말씀하신 성평등위원회 등으로 조사위를 꾸리는 게 어떨지, 일단 제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단위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비대위: 따로 참여의사를 묻는다는 것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중운위 의결된 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따로 말씀 드린 것 중에 중운위와 별개로 따로 조사위를 설립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따로 물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말씀드렸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유와 같다면 따로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 관례상으로 한 번 묻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또한 이 조사위 진행에 있어서 기권한 단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조사위 설립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묻는 부분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운위와 함께 가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부총: 다만 여기서 의견을 좀 더 전해드리자면, 지금 이 조사위를 설립하는 배경은 중운위가 중운위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지금 조사위를 설립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바는 조사위가 전체 중운위 단위의 참여가 아니라 일부 중운위 단위의 참여로 이루어졌을 때는 조사위에서 파악된 경과를 바탕으로 중운위 입장을 수립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그것이 어떤 중운위 입장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총: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위 설립 취지가 중운위 입장 표명을 위해서 설립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부총학 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운위 전체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표자분들께서 참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가 중운위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결이 진행이 되고 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된다.

경경.정: 경경대 그럼 수정발언 하겠다. 이 중운위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이 구성원은 중운위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총: 추가로 성평등위원회가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지.

간호.비대위: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에 중운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중운위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성평등위원회도 참여를 하는 것에 간호대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이제 성평위 같은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 보니 해당 구성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총: 알겠다.

총: 조사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간호.비대위: 조사위가 꾸려진다면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더 여쭙보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다음으로는 가해지목인을 지목을 해주신다면 그 지목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된건지, 그 다음에 입장문을 발표하신 학우 분들께도 연락을 드려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증거로 입장문을 발표하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과 별개로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을 겸하여 중운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위에 성평위가 들어온다면 자문을 함께 들어야 하니까 한 번에 성평위와 활동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총: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 내용이라 함은 앞으로 조사위에서 진행할 내용을 확정짓자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떠한 내용과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정도는 피해자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 내용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간호.비대위: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결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동의하에 구성을 한다는 의결을 진행하였으니, 이 논의 배경과 논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분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경경.정: 경경대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간호.비대위: 더불어서 피해자분께 한 번에 요청을 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만약에 조사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시라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해서 다 여쭙보고 다음 논의에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총: 정리하도록 하겠다. 금차 회의에서 나온 관련 내용들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다. 특히 조사위 설립과 관련되어 피해자분의 동의 얻도록 하겠다. 만약 피해자분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중운위 특방에 조사위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괜찮으실지.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간호.비대위: 간호대 동의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 동의한다.

동연.정: 동연 동의한다.

총: 대부분의 대표자분들께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논의안건 마치도록 하겠다. 혹시 질의사항 있을지.

간호.비대위: 조사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신 다음에, 꾸린다면 언제 꾸려서 첫 회의를 이제, 중운위 구성원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된다면 중운위가 회의 날짜를 따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중운위 회의 날에 진행하는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총: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려고 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방대한 만큼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 회의 날짜를 따로 결정하여 그 날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관련 내용은 피해자 동의 얻은 다음 재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혹시 오늘 임시회의 속기록도 올라오는지. 서기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묻는다.

총: 부총학생회장님께서 고생해주신다.

사과.정: 알겠다.

총: 금차 회의 때 논의된 회의 내용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4차 정기회의 때 올라간 속기록처럼 전체비공개할 것인지, 혹은 일부비공개할 것인지, 혹은 전체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표자들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생각된다.

경경.정: 계속 비공개 자료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결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다.

간호.비대위: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해당 속기록을 작성을 한다면 기존처럼 모든 발언을 적으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만약에 비공개 처리가 돼서 게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의내용 숙지를 위해서 저희 중운위 안에서의 회의록은 올라와야 할 터인데, 그러면 두 개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하나로만 작성을 하는지

부총: 그러면 속기록은 전문을 올려 드리고, 공개는 논의된 바에 따라서만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다.

간호.비대위: 저번처럼 속기록 먼저 올려 주시고 해당 파일 보고 의결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총: 다른 단과대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조사위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공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공개 문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두 버전 올려주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그러면 일전과 동일하게 회의록 올려드리고, 회의록 한 번 살펴보신 다음, 대표자들의 의견 구하는 것으로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 동의한다.

사범.부: 사범대 동의한다.

통공.정: 동의한다.

총: 그럼 논의안건 마치도록 하겠다.

4. 기타 안건

간호.비대위: 회의 진행할 때 ZOOM을 통해서 진행하니 CAM을 모두 켜는 게 어떤지

총: CAM을 모두 켜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금차 회의에서는 공대 회장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셔서 금차 회의까지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모두들 카메라 켜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교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난번에 총학생회에서 칙칙이라고 하나, 소독용품을 나눠줘서 단과대 학생회실을 소독했었는데 혹시 올해도 그런 걸 하는지, 방역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쭙는다.

총: 방역물품이라 함은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방역을 진행을 하였다. 현재 학생지원팀에 여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총실 방문하셔서 제게 인계받으시면 될 것 같다.

통공.정: 학위수여식 방식이랑 일정 확정 공고를 빨리 내주라는 요청이 자꾸 들어와서, 학교 측에 말씀 한 번 부탁드린다.

총: 알겠다. 학교 측에서도 학위수여식 진행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위수여식이 진행이 되되, 학위복 대여의 경우에는 이번 동계 학위수여식때 진행하지 않고 다가오는 하계 졸업식 때 대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논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간호.비대위: 학위수여식 관련하여서 지난 62대 중운위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졸업영상을 만들라고 단과대 학생회에 갑자기 학교에서 지령이 떨어져가지고, 혹시 이런 계획이 또 있는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총: 학위수여식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담당 업무가 아니라 총무팀에서 관할을 한다. 학교에 방문을 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단과대 교학지원팀을 통해서 대표자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현재 교학지원팀과의 논의 과정에서 영상 제작을 요청 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 따로 전달 필요 없을 것 같다.

총: 해당 사항은 교학지원팀에 문의를 하셔서 관련 공문이 내려왔는지 확인절차 밟아주시기 바란다.

총: 추가 의견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중앙운영위원회 4-2차 임시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